

인간에게서 이 성벽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사랑과 의와 화평과 희락의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인류를 구원키 위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사리와 선과 악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속에서 주어진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판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도록 능동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절대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므로 죄가 인간과 세상에 들어와 타락하였기에 인간에게는 타락의 결과로 이 성벽이 마음속에 생기고 그에 따라 육신을 쫓아 살게 되어 죄가 만연케 되고 오늘날과 같은 혼돈속에서 참 삶의 본질과 목적을 상실하고 세상을 쫓고 있다. 이 성벽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과 이론과 지식과 이치와 관습들을 말한다. 여기에도가 더 덧붙일 것이 있다면 욕망일 것이다. 이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권모술수를 써 가며 좌충우돌을 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어지럽다.

이 성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이다. 이 성벽은 인간이 영원히 죽도록 육신을 쫓아 살게 하는 무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타락한 육신에 있게 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롬8:5-8,13).

그래서 성경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다(고후10:4). 여기서 강력 곧 하나님의 병기로 믿음과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 성벽을 무너뜨려 죄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강한 능력이다.

진정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병기로 마음속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려 더 이상 자신이 왕이나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마치 토기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쓰임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성벽이 무너지면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과 지식과 사고와 생각에 따라 분별력과 지혜가 생기게 되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이리 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롬8:9,14,15). 이에 따라 세상의 것과는 구별되어 하나님중심의 삶을 살게 되므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19:2,벧전1:15,16)이다. 이는 하나님나라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거룩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거룩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르시는 자들도 거룩한 자 곧 성령안에서 말씀으로 산 자들인 것이다(마5-7장참조). 마치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자들이다.

내 자신이 거룩한지를 알아보려면 간단한 방법이 있다. 지금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안에 있는지 혹은 아닌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요일2:16). 다른 말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성벽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세상에 빠져 있는 자이요, 죄에 속한 자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8장13절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 믿음으로 나가야할 올바른 방향이란 세상과 구별된 사고와 삶인 것이다(골3:2-5). 곧 거룩한 삶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므로 자유의지의 발동도 이에 맞추어져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2장 20절을 통하여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을 막아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것으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잘 못 사용해서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성벽까지도 가슴속에 쌓은 반역자와 같은 죄인인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가 어떨지라도 회복시켜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와 화해와 회복을 시키신 것이다.

이 시대의 흐름은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형국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이제는 구원의 차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 주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 들림을 받아야 한다. 현세적인 믿음이나 자기영달은 들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안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려 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가차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목을 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속히 변화하고, 이전 정말 전과 같을 수 없는데 여전히 옛 사고와 옛 방식을 놓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주관하고 가르치고 지적하여야 고쳐 줄 수 있다는 교만이 죄로 가득한 인간을 위해 친히 인간이 되신 그분처럼,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마음껏 그의 향기를 발하기를...

<기도제목>

1. 일요 모임의 청년들이 D훈련을 통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2. 동역자들을 신뢰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며 기다려 줄 수 있도록
3. 언어와 학업(논문), 신변의 안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능커녕 적응도 버겁습니다. 물질과 과학은 복음의 선한 도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주는 편리함과 안락함 가운데 소중한 것들을 자꾸만 잃어갑니다. 비대면 모임이 일상화된 현실 가운데 여전히 옛 방식을 놓지 못하는 저와 동역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저 오래 참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편리와 재미에 젖어 들어 양들이 결길로 들어섭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하는데, 목자는 어느 길로 가야 할 지 확신이 아 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 : 2

시류를 따르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현지인 커플이 테이블을 펼쳐 자리를 잡고 한껏 분위기를 내던니만, 서로 얼굴도 안 보고 핸드폰만 들여다 봅니다.

-중국 조○○, 윤○○ 선교사-

선교 편지 5월 소식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기홍목사님과 미국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태국은 4월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매일 이천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어떤 날은 만명 가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학교도 온라인수업으로 대체되었고 해외입국자도 백신을 맞아도 14일 자가격리로 바뀌었습니다. 태국정부에서는 100명을 검사하면 4명 정도가 확진자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제대로 하면 확진자는 훨씬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한동안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백신을 맞고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보플러이교회 소식

칸짜나부리 보플러이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제한이 있지만 모임 자체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올 수 있는 성도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생 세 명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반을 공부했습니다. 재작년에 기초반을 했는데,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일대일팀이 와서 진행했습니다. 계획은 또 일대일팀이 와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오지 못해 자체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할까도 생각했지만 신학생들도 계속하기를 원하고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지 않아 조심하면서 부담주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의 보좌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2. 예배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예배가 되도록
3. 보플러이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4. 세명의 신학생들이 잘 훈련 받고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5.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안정이 되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6. 한국과 태국에서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태국 박경덕 신미선 선교사-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 예레미야 30: 17 >

임진섭, 양윤희(하엘) 선교사가 은혜한교회에 문안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요즘 계속 4차 확산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데 태국도 3차 확산으로 요즘 2천명을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병원에서는 검사시약이 떨어져 검사를 거부하거나 입원실이 없어 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을 더 굳게 세워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태국의 전교회는 온라인예배로 모든 학교는 등교금지나 온라인수업으로 변경되고 5월 1일부터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 감사 제목 >

저희가 12월에 태국에 들어와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입국하기 전 아내가 한국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 유방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3월에 태국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종양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사는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 달력을 폈을 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예레미야 30:17>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검사하기 전에 작정기도로 더욱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양을 없애주심의 은혜를 받았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왼쪽어깨에 석회화 있어서 부여올랐는데 지금은 거의 가라앉았습니다. 치료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부터 문화공연사역과 주일학교사역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역 이야기 >

1.한인교회 주일학교 사역
태국에 입국하여 한인교회 주일학교 사역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한두달간 적응기를 보내고 3월부터는 그 간 나오지 않던 아이들도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가 많이 안정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3차 유행이 발생되어 4월 둘째 주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저희 부부의 사명 “문화공연사역”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에 모노드라마 녹슨 세 개의 못을 공연하였습니다. 20여 년 전에 두어 번 공연하고 너무 오랜만에 공연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공연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연극으로 태국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의 달란트로 사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돕는 사역을 잘 준비하고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 가정 이야기 >

태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저희는 주일학교사역이 중지되고 방학 중인 하엘이도 개학이 5월에서 6월로 미루어졌습니다. 저희 언어학원도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태국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중지되었거나 온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태국에 온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가 없이 버텼는데 이제는 구입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언어공부이지만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형극, 연극사역은 무대, 조명, 의상과 소품 등을 싣고 다니며 사역하기 때문에 차량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 태국의 대중 교통은 한국보다 상황이 어려워서 이동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태국은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발달로 공산품과 자동차는 한국보다 1.5배나 2배 이상의 가격입니다. 특히 중고차도 가격대가 10년 된 차가 신차가격의 50%이상의 가격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합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제목>

1. 우리가족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매일의 가정예배로 믿음 안에 거하도록.
2. 건강을 위해
 - 임진섭선교사 목에 물혹이 있는데 조직검사를 하려면 성대를 잘라내서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로 물혹을 제거해 주소서.
 - 양윤희선교사 손목 건조염, 목 디스크
 - 한국에 계신 어머니(이상윤집사)께서 몇 년째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최근 폐에 물이 차고 혈관 문제로 인해 다리가 계속 붓고 있습니다. 5월 중순에 대학병원에 검진예약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지켜주소서.
3. 저희가족에게 언어에 기름부으시어 태국어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실히 공부하도록.
4. 한인교회에서 맡은 주일학교사역과 문화공연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5.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적합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6. 하나님께서 태국의 코로나를 종식시켜주셔서 일상이 회복되도록.

-태국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

인도네시아 (남부칼리만탄)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 / 사랑의 공동체 100일 특별 기도

1.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 1)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과 사역이 되게 하소서.
 - 매일 아침 05시-07시, 저녁 20시-22시, 금요일야 20시-02시 기도시간을 지켜주소서.
 - 매일 사역시간 09:00-17:00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소서.
 - 사람과 외적인 환경을 넘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 마음과 생각, 육신의 악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2. 칼리만탄 복음화 사역을 이루소서!
 - 1) 칼리만탄 반자르 종족을 위한 교회와 예배,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반자르 종족 : 인구 400만, 종교 이슬람 (99% 이상), 종족교회 및 사역자가 세워지도록.
 - 2) 칼리만탄 다약 종족을 통하여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확산되게 하소서.
 - 다약 종족 : 인구 350만, 종교 기독교 (20%), 신학교 3곳, 1200여 교회, 70만 성도.
 - 거듭남을 통한 영접보다는 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반자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3) 개인적으로 매월 30여 가정 (관계전도)에 방문하여 구제하고 전도하는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3.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 1) 인도네시아 약 2억 7천만명의 주민, 1만 7천여개의 섬, 300여 종족, 문화, 종교, 언어의 다양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전파되게 하소서.
 - 2) 갖가지 재난 (홍수, 화산, 지진, 산불 등)과 질병 (코로나, 말라리아, 뎅기 등)으로 고통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소서.
 - 3)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위기에 직면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주셔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각 국면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소서.
 - 4) 인도네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와 목회자, 선교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역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의 증인 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4. 인도네시아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건축을 위하여!
 - 1) 5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랑의 공동체 100일 특별기도”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100%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 2) 사랑의 공동체 운영진의 비전 공유와 상호간 기도와 협력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 3)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역할-보육원, 교육(유치원), 선교 훈련, 예배 처소, 구제와 전도 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헌당되게 하소서.
 - 4)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건축이 진행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순조로운 건축이 진행되도록.

5. 사랑의 공동체를 통한 선교사역과 방향을 위하여!
 - 1)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선교: 하나님께서 택하여 맡겨 주시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영적인 부모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 2)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선교: 겨자씨, 누룩과 같이 작고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고, 소량의 누룩이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리는 것과 같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복음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 3) 하나님 나라 공동체 선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과 사랑, 소망 가운데 성장한 아이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인도네시아와 칼리만탄 복음화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구) 사랑의 공동체 건물 철거



철거 후 사랑의 공동체 부지 (230평)



(현지법인) 사랑의 공동체 선교센터 조감도

-인도네시아 김태환, 주애니 선교사-